“결제, 마음 장벽 화두 일념으로 부수는 과정”

을사년 하안거 해제 법회 봉행
전국 92개 선원서 1790명 정진
조계총림 등은 9월 6일에 해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이동격 강원지사장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영축총림 통도사, 해인총림 해인사, 금정총림 범어사, 덕숭총림 수덕사의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 모습.

불기 2569년 을사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8일(윤 6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이 해제 법회를 봉행하고 한철 수행을 회향했다.

전국선원수좌회가 발표한 〈을사년 하안거 선사방함록(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92개 선원(총림 선원 6곳, 비구 선원 59곳, 비구니 선원 27곳)에서 총림 선원 222명, 비구 선원 1046명, 비구니 선원 522명 등 총 1790명 대중이 정진에 동참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일 설법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올해는 산불과 수해, 폭염 등 재해가 많았지만 결제 대중의 정진력과 법력으로 무사히 해제를 맞았다”고 치하하고 “결제는 은산철벽처럼 가로막힌 마음의 장벽을 화두 일념으로 부수는 과정이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둡고 어리석지만, 깨쳤을 때는 밝고 지혜롭다. 하루를 깨달음 속에 사는 것이 백 년을 사는 것보다 귀하다”고 중단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8일 대웅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는 “오늘 해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종전에 다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다시 용맹심을 내 정진해야 자신의 본분사인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해제를 하루 앞둔 7일 대웅전에서 하안거 포살 및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와 주지 도신 스님, 선덕 지운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교구 대중과 수행 대중이 참석했다. 우송 대종사는 법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허공의 피를 주는 심장”이라며 화두 수행의 핵심은 ‘이름 없는 그 이’에 대한 철저한 의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상과 마음을 바꿀 힘은 각자의 심장에 있으며, 숨 쉬고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허공의 작용”이라고 법문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도 7일 보제루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선원·율원·강원·신도 선방 등 각 도량의 수행 대중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정진한 대중을 격려하고 “무명과 실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망상과 진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했다. 이어 “참된 도인은 망상을 일부러 끊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 머물고 행하는 일상이 곧 도(道)이고 수행”이라며 “본분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해제 후에도 자나 깨나 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8일 백담사 검인당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은 “정진의 원력으로 좌선에서 행선으로 전환하더라도 화두를 끝까지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8일 적광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에서 “뜨거운 열기로 모두가 힘든 지금, 한 철 동안 정진한 수행의 힘으로 청량한 바람을 안고 청풍(淸風)을 일으켜 세상을 환희롭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달로 6월 10일(음력 5월 15일)에 결제에 든 조계총림 송광사를 비롯한 선원들은 오는 9월 6일(음력 7월 15일)에 하안거 정진을 회향한다.

통도사, 가사불사 회향…“사부대중 원력으로 법맥 이어”

6월 25일부터 49일간 제작 · 봉안
도편수 명천 스님 등에 감사패


통도사가 8월 12일 설법전에서 봉행한 ‘가사불사 회향식’에서 스님들이 가사를 정대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가사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번 가사불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49일간 영산전을 가사당으로 운영하며, 가사를 전통 방식으로 제작, 봉안하는 인연의 장으로 마련됐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가사를 봉안한 도량으로, 가사의 법맥과 의미를 대중과 함께 잇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가사는 수행자의 상징이자 불법을 전하는 표징으로, 매 불사마다 신도와 스님이 한마음으로 제작에 동참하며 그 공덕을 회향해 왔다.

이날 회향식은 점안의식 이후 가사 정대 및 공양의식이 이어졌다. 가사를 전달한 학인스님들이 무릎을 꿇고 가사를 머리 위로 받들어 올리자, 마주선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등 대중 스님들이 합장으로 예를 표하며 가사정대 의식이 엄숙히 진행됐다. 이어 가사를 갈아입은 스님들이 대중을 향해 앉자, 법당에 모인 불자들이 일제히 삼배를 올렸다.

회향식은 △개회 △삼귀의 △가사불사 공로자 감사패 수여 △주지 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번 불사에 기여한 도편수 명천 스님, 편수 금강수·길연심 보살을 비롯한 봉사자 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라시대부터 통도사는 스님을 배출하는 중심 도량이자 가사의 인연을 대중과 함께 이어온 도량”이라며 “이번 불사는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정연 회장,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수상

시 ‘닻, 타법’ 외 55편으로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사진〉이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8월 8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해양문학제’의 주요 행사로, 제30회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 해양문학 특강과 함께 진행됐다.

수상작 ‘닻, 타법’ 외 55편은 차 회장이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고향에서 자라며 체득한 해양의 기억과 삶의 항해를 시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차 회장은 2003년 수필로, 2020년 시로 등단했으며 대통령 표창, 영축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 〈어머니의 돌탑〉, 〈길의 여백〉, 〈낙동강 그 맑은〉, 수필집 〈희망〉, 〈새벽길〉 등을 펴냈으며, 2004년 부산불교문인협회에 입회해 부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차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고향에서 자라며 자연의 풍요와 삶의 결핍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해양문학을 만나 그 두 세계를 품는 법을 배웠고, 이번 수상이 제 문학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두근두근 어린이 캠프’ 개최

8월 13일~15일, 108명 참가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내에서 ‘두근두근 범어사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사진〉

‘맑은 마음, 환한 웃음, 범어사에서 자라는 인연’을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는 초등학생 108명이 참가해 사찰 예절 교육, 팀별 만다라 만들기, 연꽃 키링 제작, 싱잉볼 명상, 범어사 탐방, 물놀이, 촛불 명상, 숲속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대방 스님은 “이 시간은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마음을 닦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라며 “늘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삼광사, 방학 맞아 ‘어린이여름문화캠프’

8월 9~10일, 70명 참가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9~10일 어린이 7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문화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첫날인 9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 공예아트 △전통 떡을 활용한 케이크 만들기 등 문화체험과 발우공양, 108배 수행을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사찰예절 교육과 염주 만들기, 불교교리퀴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이어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전체 기념촬영을 끝으로 캠프를 회향했다.

삼광사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